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4호 [루게 제25142호] 주제104(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경축 4돐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온 나라 천만군민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백두의 천수령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4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받아안은 최대의 행운이며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의 날을 맞이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명도로 백두산대국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끄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수!》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수!》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수!》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의 최고성지를 더 잘 꾸리는데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태양을 높이 모신 대진당에 순결한 향심을 바치였다.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깊이 새겨안고 평양대의건설자양성사업소 로동자 김일철도 많은 설비들을 태양의 성지에 보내주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제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마호무드 아부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를 28일 이브라힘 아부 무알리크 주조 팔레스티나 국가 임시대리대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써여져있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요 무관단, 주요 외교단과 경제 및 무역참사단, 일본의 단체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하여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백두의 천수령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4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4돐에 즈음하여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백두의 천수령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4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동기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써여져있었다.

###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었다.

김정은 원수께서는 2013년 3월 미제의 대조선전략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을 때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의 화력타격계획을 검토하시고 최종비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만수!》

[조선중앙통신]

# 김양건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는 교통사고로 주제 104(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김양건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총지한 혁명전사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결실한 혁명동지이다.

김양건동지는 당과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우리 당과 인민의 훌륭한 아들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극빈한 품팔이근의 가정에서 태어난 김양건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새 삶을 받아안았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속에 참다운 혁명가, 능력있는 정치활동가로 성장하였다.

김양건동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지도원을 거쳐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 지도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 부장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존엄높은 우리 당의 대외적전위를 보장하고 세계 진보적정당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김양건동지

원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업을 총지하게 받들어온 김양건동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된다.

김양건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을 위하여, 강성국가건설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바친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빛나는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제 104 (2015)년 12월 29일

# 김양건동지의 약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인 주제31(1942)년 4월 24일 품팔이와 삿발때로 생계를 이어가던 극빈한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김양건동지는 해방후 당과 수령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서 조국통일위업의 중요직책에서 오래동안 사임하였다.

일찍이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초소에 섰던 김양건동지는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청년동맹일군을 거쳐 주제62(1973)년부터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지도원으로 일하였으며 주제66(1977)년부터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지도원, 부과장, 과장, 부부장으로, 주제86(1997)년 2월부터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부장으로, 주제96(2007)년 3월부터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주제99(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사임하면서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양건동지는 주제99(2010)년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주제104(2015)년 2월부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사임하였다.

김양건동지는 주제87(1998)년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특출한 공로로 하여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을 수여받았으며 로력영웅칭호와 국가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김양건동지는 주제104(2015)년 12월 29일 6시 15분 교통사고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당의 명도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과 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또 한들기 세월의 년륜을 새기며 조국은 최후승리를 향해 끈결음을 내질었다. 창조하고 비약하며 건립한 뚜렷한 모습을 펼친 우리 조국, 남로강해지고 보다 아름다워진 선군조선의 주제 104 (2015)년!

백자게 흘러온 한해였다. 이 땅에 수물처럼 솟아오른 최한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노라하면 백두의 칼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옮기신 선군명장의 발걸음소리가 들려오고 병사들을 찾고 또 찾으신 오늘의 빨치산 김대장의 모습이 눈앞에 어리여온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마지막 날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선군애로 계시었다.

뜻깊은 12월 24일, 《로동신문》에 실린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에서 천만군민이 받아안은 숭고한 사상강증은 무엇이었던가.

우리 혁명무력을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이었다.

12월 30일, 데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누리는 최고사령관복을 다시금 새겨주는 이날 환희와 격정의 파도가 조국강산을 진전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역사의 그 날로부터 4년이 되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에서 4년이란 긴 세월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이 나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새겨안은 나날이었으며 천만군민이 그이의 넓고넓은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40년, 400년 맞잡기로 결심하여온 자랑찬 로정이었다.

성스러운 추억의 감피를 먼저불수록 절절한 생각이 가슴을 친다. 수령님께서 걸으셨고 장군님께서 헤치시었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견고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다. ...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철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였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헤쳐가신 선군

장정의 자욱자욱이 삼삼히 어려온다. 장제도, 무도, 판문점, 오성산...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막아나서는 일군들에게 군인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군인들이 있어 최고사령관도 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은 목선에 오르시어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시며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찾으신 격동적인 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그 얼마나 세차게 울리었던가.

적아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초소에까지 나가서 초소의 모든 군인들을 철수시켜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적진까지의 거리가 불과 수백미터에 되지 않는 오성산의 깔쭉깔쭉 초소에까지 오르시어 병사들을 한몸에 안으시며 동무들의 위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다고,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라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에서 장병들은 총대의 귀중함을 다시금 뼈에 새기었으며 백두산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았다.

위험천만한 최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은 정녕 군인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다 가야 한다고 하시며 포연탄우를 헤치시며 지혜산마루에 오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었도. 군인들을 찾아가는 나의 앞길은 풍랑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파도세찬 초도대로의 항해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그대로였다.

사람들이여, 이 땅위에 일출즉발의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던 그 시기에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헤쳐가신 전진길이 사생결단의 의지로 단행하신 길이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총대로

적극 기여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비서의 중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양건동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역사적시기 당중앙의 유일적명도를 총지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김양건동지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김양건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 1. 고 김양건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
- 2. 고 김양건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김정은		
위원	김영남	리철만	림철성
	황병서	김영대	조경철
	박봉주	류미영	윤동현
	김기남	리일환	김형룡
	최룡해	리만건	김영철
	최태복	김만성	오금철
	박영식	최상건	태종수
	리영길	리영래	김수길
	양형섭	김정임	박태성
	강석주	김중협	김능오
	리용무	홍인범	전승훈
	오극렬	김경옥	박영호
	김원홍	최취	박태덕
	박범기	리병철	김재룡
	오수용	김용수	박정남
	김평해	전일춘	리상원
	최부일	정명학	강양모
	로두철	김히택	림경만
	조연준	전경남	김완수
	임철웅	서홍찬	원동연
	김덕훈	노광철	리종혁
	김용진	림광일	김진국
	리무영	조남진	박진식

# 고 김양건동지의 국가장의위원회에서

고 김양건동지의 영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은 12월 30일 14시부터 19시까지 맞이 시장회관에 안치되어있다. 고인과 영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조객들 12월 31일 8시에 고인의 영구를 발인한다.

#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 영원하리

힘을 키워주시고 기적을 안아오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날도 있었다. 그 나날속에 우리 인민군대는 사상에서도 도덕에서도 싸움준비한 상태에서 대한 믿음을 이었다. 백두산총대를 더욱 억세게 버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담보해주는 선군의 덕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준엄한 역사의 나날에 인민은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천만군민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 준것은 무엇이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하여주신 무적의 총대에 대한 믿음이였다. 백두산총대를 더욱 억세게 버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담보해주는 선군의 덕이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준엄한 역사의 나날에 인민은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역사를 팔았이 빛내여주시며 우리 조국에 최후 창조와 건설의 마지막소리, 인민들의 방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였다. 공고한 평화나 아니면 참혹한 전쟁이나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하는 상동맹위원회의 모습으로 사수하시라.







